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후원미사는 21일, 12월 후원미사는 19일, 2017년 1월 후원미사는 16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16년 9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23,881,432	전월이월금	711,869
지 로	2,442,953	우리은행	9,551,100
국민은행	5,052,000	하나은행	1,471,000
조흥은행	120,000	신한은행	1,340,000
외환은행	517,500	제일은행	230,000
농 협	1,495,000	기업은행	315,000
우 체 국	75,010	지정기탁	600,000
		교구부조	-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베들레헴어린이집	7,0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단 체 찬 조 비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6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소 계	9,0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7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8,285,000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60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22,980,000	잔액(이월금)	901,432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6. 10 / 제4호

펴낸날 2016. 10. 17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신부님글

###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섬기리

후원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드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남쪽지방은 지진과 태풍피해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서울의 하늘은 파랗고 고요하기만 합니다. 다시 한 번 교황님의 말씀처럼 무관심이 아닌 하느님의 자녀로서 물질·영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라는 복음을 표어로 "자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를 위한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올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를 체험하고 아버지의 자비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노력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여는 해보다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희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면 자비의 희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자비의 희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신을 위한 희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를 보여주는 희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재입니다."(자비의 얼굴 6항). 저의 자비의 희년을 되돌아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부끄럽지만 아직도 계획했던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실행으로 옮기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보여주는 마태오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포도원 일꾼과 품삯의 하느님나라에 대한 비유'를 기억하면서 저의 계획 중 하나였던 하루 500원 모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보니 자주 잊어버려서 얼마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정신을 차려 남은 기간 꾸준히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어 놓을 계획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도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실천하지 못하셨다면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자비의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자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오로의 축복과 인사로 후원회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2코린 13,13)

자비의 희년을 마무리 하면서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 평 안 마르코 신부





▲ 캄보디아 자조모임



▲ 베트남 자조모임

### 공동체 소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식\*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은 한국생활의 원활한 초기 적응을 위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교류로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를 통하여 자국민과 소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가족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자조모임에서는 국가별 음식나눔과 한국문화체험, 정보교류 등 다양한 나눔과 활동을 합니다. 지난 추석을 맞이하여 캄보디아/베트남 자조모임에서는 한국의 왕궁문화체험(경복궁)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문화체험과 함께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아오자이 전통의상을 입고 방문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전통체험을 통해 한국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 필리핀공동체 소식\*

필리핀공동체는 주보성인인 성 로렌조 루이스 축일을 맞이하여 필리핀에서 가수 3개 팀을 초청하여 9월 25일 성북동주민센터 강당에서 미사와 축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600여명의 필리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참석하여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필리핀공동체는 공연티켓 판매수익금으로 어려운 처지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행사로 타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자국민을 도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추기경님 방문



▲ 소방훈련

#### 국가공동체 한가위 소식\*

이주노동자 추석맞이 행사로 남미공동체, 중국공동체, 태국공동체, 몽골공동체 4개 국가공동체 130여명은 9월 14일에 롯데복지재단 후원으로 롯데월드어드벤처에 다녀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타향에서의 외로운 명절이지만, 놀이기구 이용 및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추억을 쌓고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추억을 남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문화알림

#### ABOUT China 중국\*



- 수도 / 베이징
- 종교 / 도교, 그리스도교, 불교
- 기후 / 건조성기후, 습윤성기후
- 인구 / 약 136,748만명(세계 1위)
- 기념일

- 1월 신정 (1일)
- 2월 춘절 (음력 12월 31일 ~ 다음해 1월 2일)<sup>1)</sup>
- 4월 청명절 (4일)<sup>2)</sup>
- 5월 노동절 (1일), 단오절 (음력 5월 5일)<sup>3)</sup>
- 8월 중추절 (음력 8월 15일)<sup>4)</sup>
- 10월 건국기념일 (1일)



1) 춘절 (음력 12월 31일 ~ 다음해 1월 2일)  
한국의 설날에 해당하는 중국의 가장 성대한 명절이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내는 것이 관례로 전 중국 대륙에서 대이동이 일어나 교통수단이 마비된다. 춘절에는 한 해를 평온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문 양 옆에 춘련을 붙이고 떡이나 만두, 탕위안 등 전통 음식을 먹는다.

2) 청명절 (4월 4일)  
24절기의 다섯 번째 절기로서 청명절의 날씨가 좋으면 그 해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명절이기도 하다. 조상의 묘를 찾아가 참배를 하는데 성묘에 가서 지전을 태운다. 지전은 돈과 같은 모양으로 만든 종이로서, 망자가 저승 가는 길에 사용하는 노자돈이며, 귀신이 저승에서 사용하는 돈을 의미한다. 즉 지전을 태우는 의식은 망자나 귀신을 돈으로 구슬려서 해코지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3) 단오절 (음력 5월 5일)  
중국 초나라의 시인 굴원은 부패를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다가 유배를 당하게 된다. 후에 초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비통해하며 강에 몸을 던지게 되는데 이를 기리고자 하는 날이 단오절(端午節)이다. 대표적인 두 가지 풍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쫄즈(粽子)이다. 쫄이라는 잎에 찹쌀이나 쌀 고기 대추 등을 다양하게 넣고 찌는 음식이다. 두 번째는 용선경기(賽龍船)이다. 굴원이 강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에 나가 굴원의 시신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는 굴원을 애도하기 위해 강에 배를 띄워놓기도 하고 쫄즈를 만들어 띄어놓으면서 시작한 것이 용선경기(賽龍船)의 유래가 되었다.

4) 중추절 (음력 8월 15일)  
한국의 추석에 해당하는 중국 전통 명절로 가을의 한가운데란 의미에서 중추절(中秋節 또는 仲秋節)이라 부르게 되었다. 밀가루 반죽에 견과류나 과일, 고기 등 다양한 소가 가득 찬 월병을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보름달을 보는 풍습이 있다.

####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중국공동체\*

중국교포(조선족) 및 중국인(한족)들의 고충상담을 위해 이들의 밀집 지역인 구로동, 가리봉동, 대림동 등을 기반으로 하여 가리봉동에 '가리봉 이주 노동자의 집'을 2003년 6월 29일에 개소하였다.

2009년 7월 22일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센터를 이전하여 중국이주민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인을 위해 상담했다. 2014년 3월 14일 보문동 노동사목 회관으로 옮겨 타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인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국적의 이주민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톨릭신자는 매우 적은 편으로 진정한 신앙공동체로서의 활동은 어렵다. 하지만 결혼, 유학, 노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 신자들을 위해 매월 첫째 주 11시에 노동사목회관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신앙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도록 돕고 있다.

